

중계제작기술

천 기 태
KBS TV기술국

1. 서언

1927년 2월 16일 우리나라에 라디오 전파가 JODK라는 호출부호로 발사된 이래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방송 기술의 발달은 실로 눈부신 것이었다. 1963년 KBS TV의 개국은 우리나라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건전한 오락제공과 국민 계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1980년 칼라 TV방송의 시작은 단순한 오락 기능으로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방송 매체가 엄청난 정보의 창조자이자 전달자로 변신하였고, 방송을 시청취하는 것은 오늘날 국민 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국민 생활의 침투는 대중 오락에서부터 고급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와 정보의 전달이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이와같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방송매체의 최대 특성인 동시성과 현장성의 추구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70년대까지의 방송은 제작장비의 대부분이 진공관식이기 때문에 동작 상태가 불안하고 당시의 경제 사정으로는 대단히 고가이므로 매우 소중하고 신중하게 취급되었고 따라서 방송 기술인의 권위는 매우 높았으며 제작 방식이나 내용면에서 비교적 단순하였으므로 방송 제작에 있어서 기술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에 가깝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73년, KBS는 국영에서 공영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과감한 방송 장비의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여의도의 신청사 준공과 함께 일부 스튜디오가 칼라 방송장비로 대치되었고, 이무렵 국내에서는 최초로 칼라 중계차를 영국으로부터 도입하였다. 급속한 전자기술의 발달은 방송장비의 진공관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반도체에 의한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발달로 안정도가 향상되고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편리한 소형화된 장비가 일취월장 빠른 속

도로 제작 현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방송기술인만이 조작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제작 장비가 PD나 기자가 간단히 휴대하여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등 방송제작 환경의 변화는 장비의 보수 유지보다는 운영 즉 제작기술에 관심이 더 커지게 되었고 제작 스텝과 기술 스텝이 제작기술의 일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즉 방송기술이 Hard중심의 형태에서 Soft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2. 방송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가. CATV의 등장

장르별 전문 CATV 채널의 대거 등장은 지금까지의 방송 개념을 크게 바꾼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Broad개념에서 Narrow개념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청자 대상에서 특정 계층 또는 전문 집단 대상으로 바뀌고,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함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요구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전용 채널, 뉴스 전용 채널, 음악 전용 채널 등은 공중파 방송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할 것이다. 기존의 공중파 방송은 도시의 빌딩과 잡음원 증가, 수상기 수신 안테나 설치 부적합 및 불량으로 인한 이중상(Ghost) 현상으로 난시청 지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CATV는 이와 같은 공중파의 취약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CATV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직접 위성 방송

현재 국내에서 시청하고 있는 NHK와 홍콩 스타 TV

를 보다시피 때로는 전과 낭비가 아닌기할 정도로 동일 프로그램을 반복 재방하는가 하면, 낮방송 거의 전부를 현장 중계방송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교적 소프트 웨어 시장이 크다고 하는 일본과 홍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의 경우는 프로그램 수급이 더욱 심각할 것이다.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발사한 직접 위성방송 채널에는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게 지출되는 중계 제작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것은 분명하며, 이를 위하여 일부 공연장이나 경기장에는 장시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제작할 수 있는 전송망과 통신망을 고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모든 제작 스텝을 교대로 근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며, 제작에 필요한 공간을 비롯한 편의 시설을 확보하여야 할것이다. 직접 위성 방송은 기존 공중파 방송과는 달리 프로그램 소스에서부터 시청자 수상기까지의 전송 과정 품질이 확실하는 보장되는 매체이므로 영상, 음향 공히 CATV를 능가하는 고품질(High Quality)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장비 확보및 제작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 프로그램 소재에 대한 전망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정치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형 사회에서는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다양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므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위하여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스포츠, 오락, 예술 분야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요트, 조정, 윈드서핑, 카레이스, 모터사이클레이스, 골프, 스키와 같은 레저 스포츠 중계를 위한 제작기술 습득과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현재 스포츠 중계의 주가되고 있는 구기와 격투기 경기에 대하여는 보다 제작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이제는 고급 연주회의 관람도 제한된 공간의 극장보다는 공원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에서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감상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와같은 연주 경향은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KBS에서도 수차에 걸쳐 방영한바 있다.

다음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와 정치적 행사의 한국 유치에 대한 전망은 우선 스포츠에서는 차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무주 스키장으로 확정된바 있고, 월드컵 축구는 금년 6월 1일에 한국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세

계유상선수권 대회, 동계 올림픽등은 한국에서 개최 가능성이 있는 국제 스포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벤트는 불확실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세계의 뉴스 초점이 한반도로 모아지게될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APEC국가의 정상회담 한국 개최도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3. 중계 제작기술의 발전 방향

앞으로 중계 제작기술은 직접 위성 방송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High Technology를 바탕으로한 고품질, 고충실도의 음향 제작을 목표로 하여야 할것이다. 지금까지의 공중파 방송의 최대 약점인 전송 과정의 특성 열화를 완전 해방시킨 디지털방식의 위성방송은 Original Source의 고품질을 필요로 한다. 본격적인 A/V 시스템의 보급 확대로 영상 못지않게 음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스테레오 음에 대한 중계제작 기법의 연구와 개발이 있어야 할것이며, 아울러 고품질 TV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음향시스템을 갖춘 음향 중계차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직접 위성방송의 등장은 지금까지 채널과 시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다루지 못했던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공연 실황도 장시간에 걸쳐 중계하는 편성의 여유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중파 방송도 Narrow개념을 가미한 편성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 계층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 예상되므로 전문 CATV 채널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국민 소득 향상과 더불어 레저 문화 발달로 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 지금까지 거의 취급하지 않았던 카레이스, 모터 싸이클 레이, 윗트, 윈드서핑, 골프등의 레저 스포츠에 대한 중계 제작 비중이 증대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는 물론 전문기적인 중계 제작기술 습득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다음은 중계 제작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스포츠

1) ISO녹화(Isolation Recording) 방식 도입

스포츠 중계의 생명은 찰나적인 장면의 포착에 있는 만큼 카메라 앵글의 각도와 사이즈의 다양성은 물론 시시각각으로 연출되는 극적인 장면 하나라도 놓쳐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90분 동안 진행되는 축구 경기에서 영대영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 단 한 골로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출자의 실수 이던 어떤 사정으로 끝나는 장면이 방영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재촬영 필요도 없이 끝난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 축구 중계는 중계 방송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방송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제작 방식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 카메라와 녹화기가 동시에 중계차에 설치되어 있어 모든 카메라의 영상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녹화하면서 생방송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면 극적인 장면을 놓치는 불상사가 해결됨은 물론 극적인 장면의 다양한 영상의 Replay Service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종래에는 제한된 중계차의 공간 문제와 투자비 부담의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녹화기가 소형화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게 될 전망이므로 ISO 녹화방식(Isolation Recording)은 필히 채택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2) 현장 완성 프로그램 제작

스포츠 중계 방송은 속성상 계획적인 Cue Sheet를 만들 수 없으므로 제작이 감각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출자를 비롯한 전 스태프의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텝간의 팀웍이 대단히 중요시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연주소 진행과 중계차 연출로 이원화 되어서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화면과 캐스터의 멘트에 대응해서 순발력 있게 전달하려면 연출자가 있는 중계차에서 자막과 그래픽이 직접 처리되어야 한다. 구기 경기의 스코어가 잘못 자막 처리된다던가, 선수 이름의 오자가 방영되는 사소한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출자의 요구에 즉각 응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향상될 것이다. 또한 진행 스튜디오라는 중간 작업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인력을 다른 제작으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계차라고 하는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중계차에서 진행 하는데 따른 사고 위험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다.

3) PC통신망 구성

대한체육회 또는 각 경기 연맹과 협의하여 경기 운영 방식을 적어도 지난 서울 올림픽 수준으로 과학화 내지는 전산화가 필요하다. 경기장내 LAN(Local Area Network)이 구성되어 있어 경기 결과와 기록, 선수 프로필, 입장객수, 현재의 경기장내 온습도등 모든 정보가 컴퓨터 터미널에 Display되고, 방송사의 중계차에도 제공되어 즉시 화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방송사 자체의 PC통신망 구성도 필요하다. 완전 자동화된 연주소 주조정실의 진행표가 중계차의 터미널에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데스크의 의견이나 필요한 메시지들이 모두 PC통신망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4) 기록 경기

우리나라에서는 기록 경기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적어서 거명할 만한 대회도 없어, 자연히 TV중계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스포츠 강국일수록 기록 경기의 인기도는 높을뿐만 아니라 세계 기록 보유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TV중계의 열기 또한 대단하다. 대표적인 기록 경기는 역시 육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 종목수도 많고 처리할 정보도 다양해서 TV중계로서는 가장 난해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록과 경기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화면 처리는 물론, 기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기 외적인 조건 즉 풍향, 풍속, 온습도를 검출하여 경기와 함께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Field와 Track에서 여러 종목의 경기가 동시에 거행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비롯한 제작 장비의 동원 규모가 대단히 크고 각종 특수 장비의 동원을 필요로 한다.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월드컵 축구 선수권 대회 유치에 이어서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의 서울 개최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93년 독일 Stuttgart에서 개최되었던 제4회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189개국에서 1,860여명의 육상 선수가 참가한 올림픽 다음가는 세계 대회로써, 38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4개 Feed를 동시에 제공하였고 107개국에서 Commentary 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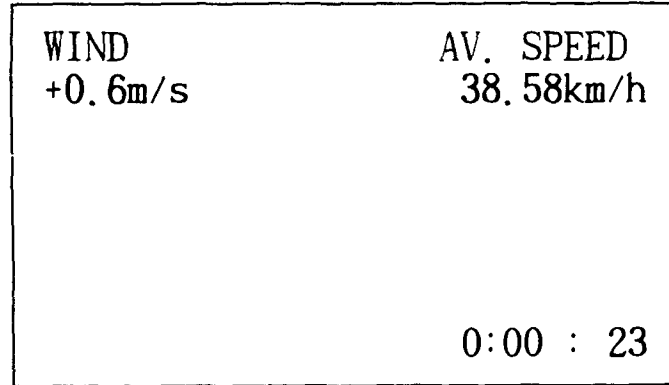


그림 1. Track경기 화면

을 사용하였다. <그림 1>는 Track경기의 화면인데, 풍향과 풍속이 화면 왼쪽에, 선수의 평균 시속과 기록이 오른쪽에 표시되고 있다.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는 기술적으로 생방송 하기가 가장 어렵고 사고 위험 부담이 큰 중계방송이지만 현재 KBS의 마라톤 중계기술은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한 여러 대회를 통해서 습득한 Know How와 제작기술 발전으로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여도 손색이 없다.

황영조 선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의 탄생으로 마라톤 기록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단순한 경기 중심의 중계 방송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정보를 화면에 부가시키는 방법으로 중계 기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현재 달리고 있는 코스의 경사도, 풍향, 풍속, 온습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화면에 제공하며, 선수의 보폭, 뛰는 자세를 검출하여 컴퓨터로 계산하므로써 기록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분석 방법도 연구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코스에 투입되는 이동 중계차는 선수의 경기 운영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가급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촬영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최신 카메라 방진대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수신기로 이동 중계차의 위치를 검출하여 현재 달리고 있는 선수의 위치를 코스 지도가 나타나 있는 화면상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것도 흥미 있을 것이다.

나. 보도 취재

95년 CATV 등장과 더불어 공중파의 낮방송이 96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송 시간의 연장은 편성에 있어 여러 면으로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그중 하나가 정시 뉴스 편성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낮에 발생한 뉴스를 취재하여 저녁 방송에 방영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나, 낮방송 시작으로 정시 뉴스가 편성되면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생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과 기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간인 낮시간에 중요한 뉴스와 사건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다음에는 뉴스의 보도 취재 강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Injection Point 확보

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앞으로 취재한 테이프를 방송사까지 자동차로 운반한다는 것은 촉각을 다투는 뉴스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림 2>에서보는 바와같이 여의도 KBS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에 테이프를 송출할 수 있는 Injection Point가 준비되어 있다면 취재원에서 가장 가까운 Point를 이용하여 즉시 뉴스 센터로 테이프를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환상형 회선(Loop Circuit)구성으로 회선료의 절감과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항공 취재 확대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대형 재해와 재난, 사건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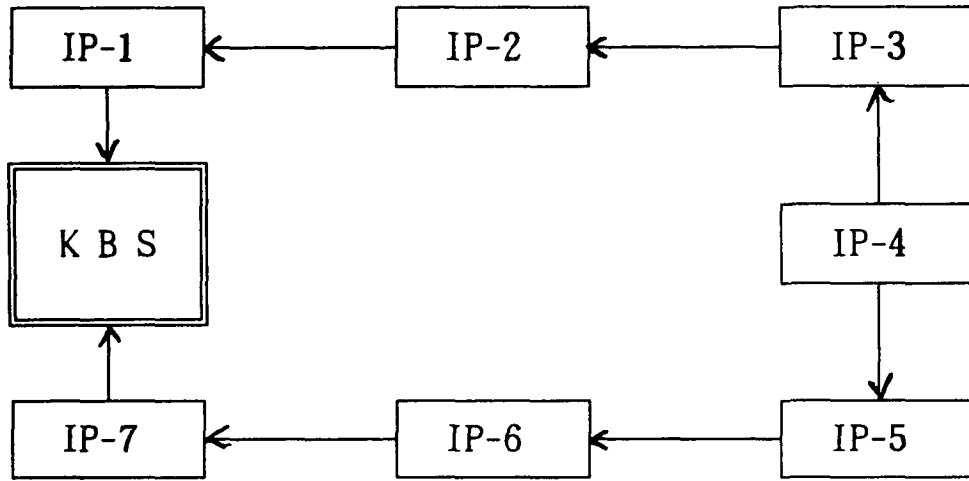


그림 2. Injection Point 회선 구성도

의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그것들은 뉴스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방송시간의 불꽃튀는 보도 경쟁을 불러온다. TV매체의 보도 매력은 현장성에 있는 것으로 뉴스 현장에서는 항상 카메라가 있어야 하고 뉴스안에는 항상 현장 그림이 담겨져 있어야 TV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당히 자료 화면이나 현장 상황을 가정한 그래픽 정도로 처리 하여서는 다채널 경쟁 시대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장 화면을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헬리콥터에 의한 취재와 송출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은 헬리콥터가 일단 이륙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생방송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헬리콥터 수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림 3>과 같이 전국 주요 지역국 송신소에 헬리콥터를 자동 추적할 수 있는 Auto Tracking Antenna System이 설치되어 있어 헬리콥터에서 직접 생방송과 테이프 송출을 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를 전파 중계 기지로 하여 지상의 현장 기사를 생방송으로 연결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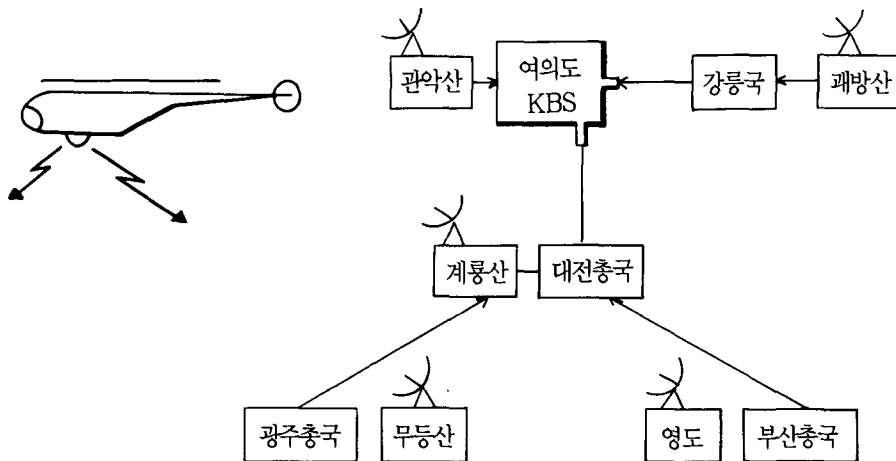


그림 3. 헬리콥터 중계망도

도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국의 취재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부산, 광주 강릉 방송국에는 권역별 항공취재가 가능하도록 장차 헬리콥터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MotorCycle 중계장비 운영

현대산업 사회에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만큼 사건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TV뉴스에서는 이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현장성과 동시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TV에서는 이를 보도하기 위한 방송시간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교통난으로 인한 육로 이동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현장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기동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도 취재와 생방송이 가능도록 하기 위하여 카메라, 녹화기, 마이크로 웨이브 송신기등 가장 기본적인 장비만 장착한 기동성이 높은 MotorCycle 중계 장비를 동원하여 초기 보도를 선점하고, 장시간에 걸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차적으로 뉴스밴을 동원하는 순차적인 보도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 뉴스 보도에서 헬리콥터가 동시에 이륙할 수 있다면,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인 취재 구성은 물론 헬리콥터를 중계 기지로 하는 마이크로 웨이브 링크 구성이 가능해져 가장 빠른 시간내에 현장 생방송의 조건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또한 MotorCycle 중계 장비는 연간 3~4개 대회를 중계방송하는 마라톤 경기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연예 오락 교양 프로그램

다채널 경쟁 시대에서 우선 유의할 사항은 지금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간과했던 사소한 부분부터 개선시켜 나가는 성실한 제작 태도일 것이다. 드라마의 야외 로케는 항상 동시녹음을 하여야 할 것이며, 쇼 프로그램에서 가수의 노래를 오디오 테이프 처리하는 방법으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무성의한 제작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악단 동원에 문제가 있으면 노래반주만 테이프에 의존하고 가수의 노래만은 생음으로 처리하는 성의는 최소한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작 스태프들의 행동과 카메라와 같은 제작 장비가 별 문제 의식없이 화면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제작 기술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며 마이크 마저도 화면에 보이지 않고 수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94년 3월에 있었던 제66회 94아카데미 시상식 실행 중계 방송에서 오프닝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남녀 사회

자는 마이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를 시작하였으며 카메라와 관련 케이블 등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깨끗한 무대처리가 인상적이었다. 매년 KBS가 신년초에 방영하는 비엔나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 연주 장면도 카메라와 마이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는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Scence By Scene으로 만들어진 구체적이고 정확한 Cue Sheet에 의하여 제작하는 관습을 습관화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 조건의 가변성이 많은 중계 제작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모든 스태프가 Cue Sheet를 놓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철저한 리허설의 반복으로 협업정신이 생성될 것이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도 향상될 것이다.

현장 녹화 프로그램의 보다 수준높은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는 모든 카메라를 독립하여 녹화하는 ISO녹화 방식(Isolation Recording)과 음원별로 분리하여 기록하는 Multi Channel Recording 방식을 도입하여 스튜디오에서의 정밀한 재제작 과정을 거치므로써, Audio, Video 공히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작기술을 선진화 하여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공중과 방송이 방송시장을 독점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CATV를 비롯한 직접 위성방송의 뉴미디어와 방송과 통신을 융합시킨 Multi Media가 등장할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방송환경 변화 속에서 중계 제작기술이 지향하여야 할 발전 전략과 방향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제작기술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은 조직의 구성원인 인적요소와 물적요소인 제작 장비로부터 나온다고 하겠다. 물적 요소인 제작장비는 재정 사정에 따라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신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스태프들의 정신상태나 자세가 구태 의연하다면 제작기술의 발전은 물론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새로운 방송 환경 변화에 떠밀려가지 않고 변화속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의 Paradigm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소극적인 사고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상위 하달식의 지시 일변도 문화에서 오랫동안 숙성되어온 수직적 사고와 독선은 이제 수평적 사고와 서로 솔선하여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전화되어야 할 때이다.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중계프로그램 제작에 앞서 스태프 미팅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Cue Sheet에 의해 반복리허설을 거친 후 제작하는 관습을 습관화 하므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향상 시키고 동시에 이런 과정을 통해 스태프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다음은 신기술 도입과 제작장비 수급에 있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 과정을 거쳐 장비의 사양과 기종 선정이 이루어져야겠다. 제작 장비의 급격한 디지털화로 아날로그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제작, 송출, 중계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구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설계의 검토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향후 도입되는 단위 장비에 대한 사양은 새로운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위성방송과 HDTV관계, VOD(Video On Demand) 참여 문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Information Super Highway 통신망과의 관계등 매체의 환경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장차 수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장비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매체의 환경 변화는 방송의 내용 못지 않게 영상과 음향의 고품질화를 시청자는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계 제작기술은 현장이라고 하는 넓은 무대 공간을 영상과 음향으로 어떻게 사실감있게 고화질, 고충실도의 음향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A/V 시스템의 보급은 지금까지 TV를 영상 중심매체로 인식하던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영상과 함께 디지털 사운드로 전달되는 웅장한 현장 입체 음향에 대하여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방송의 고품위 시대를 맞이하여 제작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Mechanism을 도입하여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는데 모든 방송인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계차에서는 ISO녹화(Isolation Recording)와 Audio Multi Track Recording방식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하며 스포츠 중계는 연출과 진행을 현장 중계차로 일원화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도 취재에 있어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 속에서도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뉴스의 현장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천 기 태

- 1973. 3. KBS입사
- 1989. 2. 남산송신소 현업기술부장
- 1991. 3. TV중계부장
- 1994. 8. TV송출기술부장
- 1996. 2. TV제작기술부장